
「새 도서관에 바란다」

도 춘 호

(자연대학 화학과 조교)

(1)

서울대학교의 종합화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 응대함으로 찬탄을 받고 있다.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역할과 결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. 관악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도서관 건물은 바로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의 막중함을 말해준다. 구태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학풍을 위한 새 캠퍼스의 도서관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. 이런 일들이 벌써부터 계획되고 실천되고 또 시정되어지고 있으리라 믿는다. 덧붙여 도서관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 새 도서관에 대한 나의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.

(2)

기존건물에서는 어디에서나 5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열람실, 기본도서실, 참고열람실, 정기간행물실 등을 돌아보면 총4,000여 석의 열람석과 1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가가 동양 제일의 면모를 보인다. 채광, 환기가 잘되고 의자를 움직여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한 것 등,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. 건물이 너무 커서 그런지,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아직 아늑한 분위기나 친밀감은 느끼지 못하겠으나 차

츄 익숙해지리라 생각되고, 빈벽이나 공간에 그림 한 폭이나 조각 한 점이라도 있으면 머리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겠다.

83만권의 장서는 일견 많은 듯하나 절반이 경성제대 시절에 수집된 것이라하니 내용의 허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. 규장각 도서를 위시하여 각종 희귀본과 고서 등의 귀중도서들도 소장되어 있으나 그외의 많은 부분은 낡은 도서들이고 또 이용도가 거의 없는 불용도서도 상당수에 달하리라 생각된다.

강의시간에 참고서적으로 지적된 책을 도서관에서 볼 수 없음은 물론,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때가 종종 있음은 슬픈 일이다. 이것을 기본도서실이 충족시켜주어야 하나 지금의 기본도서실 도서는 빈약하기 이룰데 없다. 목록을 찾고 대출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기본도서실을 더 확장하고 수강에 필요한 기본도서들을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우선적으로 모두 갖추어 주었으면 한다.

연구에 필요한 전문서적은 더욱 드문 현상이다. 예산은 적고 워낙 많은 분야로 세분되어서 그런지 크게 각 분야 별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. 그러나 이제 도서관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도서를 언제 구입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. 도서선정에 있어서 각 전공분야별로 장기적이고도 일관성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

워 구입 되어야 하겠고,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으면 한다.

전문서적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잡지의 부족은 가뜰이나 어려운 연구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. 폭증하는 과학 및 기술정보는 이제 연구자가 자기에게 흥미있는 분야의 논문을 모두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. 뿐만 아니라 자기분야의 논문을 고르고, 그 초록을 읽는 것만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. (화학의 경우, 매년 15만여종의 새로운 화합물이 알려지고 화학초록(Cheical Abstracts, 미국화학회편)에 실리는 논문만도 35만~40만 편에이른다.) 이렇게 되면 논문의 초록 및 색인은 연구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. 초록 및 색인이 없으면 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의 효용은 반감되고 또 연구자는 문헌 찾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또 정확을 기하기도 어렵게 된다(예로서 화학초록 및 색인(Cheical Abstracts with Index)의 필요성을 들어보자. 과학기술에 관계하는 논문의 15퍼센트가 화학 및 화공을 포함하는 데이 내용들의 초록을 실고 있으며 1907년에 발행되어 75년까지 약 600만 편의 논문초록을 실고 있다. 이중에서 약 30퍼센트는 의학, 농학, 약학, 생물학 등의 생물과학에 관한 것이다. 각 국에서 발행되는 과학기술잡지는 약 2,600여 종인데 이 초록에 인용되는 잡지는 12,000여 종에 달한다) 그런데 도서관에는 초록이 몇 종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본된 것도 있고 색인의 미비로 초록의 이용마저 느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. 초록 및 색인의 완비가 시급한 일이다. 서지실의 충실은 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에 활성을 띠게 할 것이다.

도서관과 각 과별로 상당 수의 전문잡지들이 구독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. 잡지의 종류도 더 늘려야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 모든것을 구입할 수도 없겠다. 보완방법으

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“풀”제나 다른 방법에 의해 문헌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. 의과대학의 의학도서관의 경우, 아시아재단의 국제도서 상호대차계획에 의해 의학도서 및 문헌의 상호교류자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

학문의 발달과 이에 따른 세분화는 사서의 전문화를 요구한다. 더구나 방대한 자료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본교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, 분류 및 정리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고 자료의 참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다.

전문사서의 양성, 그리고 폭증하는 정보에 대비하여 자료의 기계화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.

(3)

도서관 직원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는 도서관을 밝고 활기있게 만들고 있다. 교수 및 대학원생의 도서관 이용은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학부 학생들에게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.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장하지 않은 문헌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. 그리고 정기간행물실, 복사실은 좀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겠고(지금은 오후 6시) 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 복사시설을 더 늘렸으면 한다. 서지실과 정기간행물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벌써 협소하다는 생각이든다 신착도서 및 자료도 안내판을 이용하여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.

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도서관 시설이 훌륭하고, 좋은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이용을 잘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.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으로 도서관과 연구실이 항상 활기있게 움직여야 하겠고,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, 어떻게 하면 자기의 문제 해

결에 적합한 도서와 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를 학생들이 익혀야 하겠다. 그리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도서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.

(4)

교과서와 노트와 흑판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다.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결했으며, 무엇이 문제인가, 그리고 어디까지 와있는가,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무런 자료나 정보없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? “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응비”란 사명을가지고 새로운 캠퍼스에 이제 모였다. 눈부시게 발전하는 학문을 주도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응비는 바로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의 응비가 앞서야 한다. 그래서 새로운 학풍을 조성해야 할 것

이다. 도서관이 얻어들은 풍월식의 지식인, 배타적이고 성실하지 않은 지식인이 교활하고 비굴한 병든 지식인이 아니라 민족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인,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인, 그리고 용기 있고 진리, 정의, 자유, 평화를 사랑하는 건강한 지식인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.

일의 순서가 있겠으나 이제부터 도서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대학당국은 예산배정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. 도서관 운영에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되지만 학교당국의 정책적 배려와 도서관 직원들의 성의 있는 봉사정신으로 해결되길 바란다.

나의 도서관에 대한 주제넘는 의견과 불평 그리고 과대한 요구는 그만큼 새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.